제 177호
2022-16호
(2022.9.29.)

KLSI

ISSUE PAPER

www.klsi.org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22년 3월 현재)-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목차]

Ⅰ. 전체
Ⅱ. 남녀
Ⅲ. 규모
Ⅳ. 산업
Ⅴ. 시도
Ⅵ.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비율
Ⅶ. 재벌기업
Ⅷ. 1만 명 이상 거대기업
Ⅸ. 함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407 (백련빌딩) 701호
전화 02)393-1459
팩스 02)393-4449
www.facebook.com/klsi.org/

〈요 약〉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2022년 3월)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은 2014년 3월 2,942개소에서 2022년 3월 3,687개소로 745개 증가했고,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같은 기간 436만명에서 523만 명으로 87만명 증가했다.

둘째, 비정규직은 2014년 162만명에서 2018년 194만명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187만명으로 감소했고, 2020~21년에는 189~192만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208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37.3%에서 2017년 40.3%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18년 39.8%에서 2021년 37.9%까지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39.8%로 한 해 만에 1.9%p 증가했다.

셋째, 10대 재벌 노동자 136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52만명(38.0%)이다. 이 가운데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0만명(7.7%)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1만명(30.3%)이다. 10대 재벌 비정규직 비율은 GS(64.0%), 포스코(61.0%), 현대중공업(59.2%), 롯데(53.2%), 농협(42.6%), 한화(40.9%), 삼성(36.7%), 현대자동차(34.6%), SK(25.0%), LG(23.7%) 순이다.

넷째, 1만명 이상 거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62만명(43.3%)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9만명(13.4%),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2만명(29.8%)이다.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대기업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파견이다.

다섯째, 산업대분류 기준으로는 제조업이 941개(25.5%)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16개(16.7%)로 두 번째로 많다. 노동자수를 보더라도 제조업이 153만명(29.2%)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9만명(13.2%)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것은 그만큼 무분별한 아웃소싱으로 인력파견 용역사업이 번창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22년 3월 현재)-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Ⅰ.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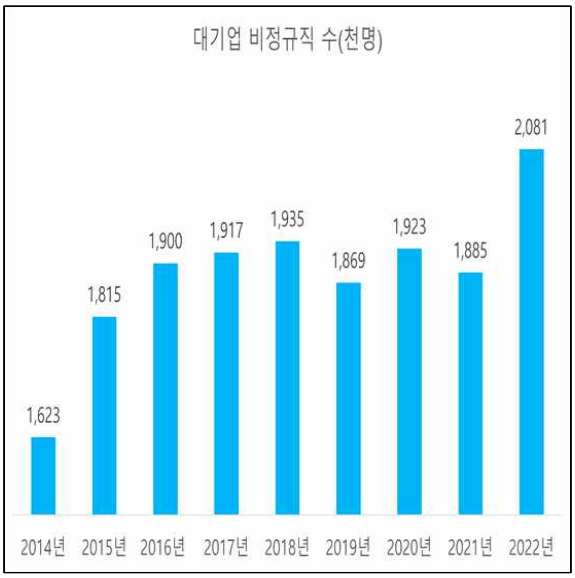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은 2014년 3월 2,942개소에서 2022년 3월 3,687개소로 745개소 증가했고,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같은 기간 436만명에서 523만명으로 87만명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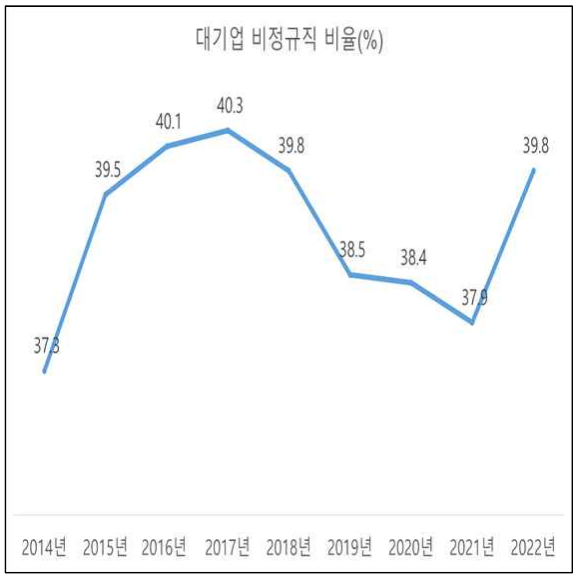
정규직은 2014년 274만명에서 2022년 315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2014년 162만명에서 2018년 194만명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187만명으로 감소했고, 2020~21년에는 189~192만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208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014년 75만명에서 2018년 103만명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99만명으로 감소했고, 2020~21년에는 101~102만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115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2014년 87만명에서 2016년 93만명으로 증가했다가 2017~21년에는 86~91만명 수준을 오르내렸고, 2022년에는 94만명으로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37.3%에서 2017년 40.3%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18년 39.8%에서 2021년 37.9%까지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39.8%로 한 해 만에 1.9%p 증가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014년 17.2%에서 2017년 21.3%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8년 21.1%에서 2020년 20.2%까지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 20.5%, 2022년 21.9%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2014~2015년 20.0%를 정점으로 2021년 17.4%까지 감소하다가 2022년 17.9%로 증가했다.

[그림1]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2014~22년, 단위: 천명, %)





〈표 1〉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연도	기업수 (개)	노동자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고용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제	단시간	
규모	2014년	2,942	4,358	1,623	750	672		873	37.3	17.2	15.4		20.0
	2015년	3,233	4,593	1,815	898	842	195	918	39.5	19.5	18.3	4.2	20.0
	2016년	3,464	4,737	1,900	969	900	207	931	40.1	20.5	19.0	4.4	19.7
	2017년	3,418	4,755	1,917	1,015	928	234	902	40.3	21.3	19.5	4.9	19.0
	2018년	3,475	4,865	1,935	1,029	931	248	906	39.8	21.1	19.1	5.1	18.6
	2019년	3,454	4,859	1,869	988	886	252	881	38.5	20.3	18.2	5.2	18.1
	2020년	3,520	5,002	1,923	1,010	924	234	913	38.4	20.2	18.5	4.7	18.3
	2021년	3,555	4,973	1,885	1,021	937	245	864	37.9	20.5	18.8	4.9	17.4
	2022년	3,687	5,234	2,081	1,146	1,051	294	935	39.8	21.9	20.1	5.6	17.9
증감	2014-15년	291	235	192	148	170		45	2.2	2.3	2.9		0.0
	2015-16년	231	144	85	71	58	12	13	0.6	1.0	0.7	0.1	-0.3
	2016-17년	-46	18	17	46	28	27	-29	0.2	0.8	0.5	0.6	-0.7
	2017-18년	60	110	18	14	3	14	4	-0.5	-0.2	-0.4	0.2	-0.4
	2018-19년	-21	-6	-66	-41	-45	4	-25	-1.3	-0.8	-0.9	0.1	-0.5
	2019-20년	66	142	54	22	38	-18	32	0.0	-0.1	0.2	-0.5	0.1
	2020-21년	35	-29	-38	11	13	11	-49	-0.5	0.3	0.3	0.2	-0.9
	2021-22년	132	261	196	125	114	49	71	1.9	1.4	1.3	0.7	0.5

Ⅱ. 남녀

고용형태 공시제 기업에서 일하는 남성 334만명 가운데 정규직은 206만 명(61.8%)이고 비정규직은 127만명(38.2%)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67만명(20.0%)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61만명(18.2%)보다 많다.

여성 노동자 190만명 가운데 정규직은 109만명(57.5%)이고 비정규직은 81만명(42.5%)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54만명(28.4%)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27만명(14.1%)보다 많다.

〈표 2〉 성별 비정규직 규모(2022년 3월 현재)

성	기업수 (개)	노동자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제	단시간	
남자	3,687	3,336	1,274	606	585	94	667	38.2	18.2	17.5	2.8	20.0
여자	3,687	1,899	808	540	466	200	268	42.5	28.4	24.6	10.5	14.1
전체	3,687	5,234	2,081	1,146	1,051	294	935	39.8	21.9	20.1	5.6	17.9

Ⅲ. 규모

노동부가 집계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에는 '300인 미만' 기업(124개소 3만명)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30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에서는 27.1%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에서는 43.3%다. '300인 이상 5천인 미만' 기업에서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보다 높지만, '5천인 이상' 기업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보다 높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낮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다.

〈표 3〉 기업규모별 비정규직 규모(2022년 3월 현재)

기업 규모 (전체노동자기준)	기업수	노동자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제	단시간	
300인 미만	124	27	9	8	8	1	1	33.7	29.8	28.7	5.4	3.9
300-499인	1,243	493	134	113	105	28	21	27.1	23.0	21.3	5.6	4.2
500-999인	1,284	894	319	246	237	53	73	35.7	27.5	26.5	6.0	8.1
1000-4999인	874	1,683	691	442	420	98	248	41.0	26.3	25.0	5.8	14.8
5000-9999인	102	716	314	146	128	44	168	43.8	20.3	17.9	6.1	23.5
1만 인 이상	60	1,422	615	191	153	70	424	43.3	13.4	10.7	4.9	29.8

기업 규모 (전체노동자기준)	기업수	노동자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제	단시간	
전규모	3,687	5,234	2,081	1,146	1,051	294	935	39.8	21.9	20.1	5.6	17.9
300인 이상	3,563	5,207	2,072	1,138	1,043	293	934	39.8	21.9	20.0	5.6	17.9

Ⅳ. 산업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941개(25.5%)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16개(16.7%)로 두 번째로 많다. 노동자수를 보더라도 제조업이 153만명(29.2%)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9만명(13.2%)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것은 그만큼 인력파견 용역사업이 번창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비정규직 비율은 건설업(79.3%),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70.1%), 부동산업(63.2%), 숙박음식점업(61.3%),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53.3%), 교육서비스업(47.0%)이 높고, 전기가스수도사업(17.6%), 정보통신업(17.1%),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16.9%)은 낮은 편에 속한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부동산업(51.8%), 사업시설사업지원서비스업(45.5%), 숙박음식점업(44.4%), 교육서비스업(38.2%)이 높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58.8%), 건설업(47.3%)이 높다.

〈표 4〉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2022년 3월 현재)

산업대분류	기업수 (개)	노동자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제	단시간	
광업	1	1	0	0	0	-	0	25.9	7.2	7.2	-	18.7
제조업	941	1,528	363	75	72	6	288	23.8	4.9	4.7	0.4	18.8
전기,가스,증기	12	6	1	0	0	0	1	17.6	3.3	3.2	0.3	14.3
수도,하수폐기물	14	11	2	2	2	0	0	16.9	15.2	15.2	0.8	1.7
건설업	232	466	370	149	149	7	221	79.3	32.0	31.9	1.5	47.3
(생산자서비스업)	1,112	1,331	604	443	423	63	161	45.4	33.3	31.8	4.7	12.1
금융보험업	173	321	92	32	31	6	59	28.6	10.1	9.7	1.8	18.5
부동산업	104	112	71	58	57	6	13	63.2	51.8	50.9	5.7	11.4
전문과학기술	219	205	72	38	34	8	34	35.0	18.4	16.5	4.0	16.6
사업시설관리	616	692	369	315	301	42	54	53.3	45.5	43.5	6.1	7.8
(유통서비스업)	651	964	299	156	123	54	142	31.0	16.2	12.7	5.6	14.8
도매소매업	237	414	155	85	56	43	70	37.6	20.6	13.5	10.4	17.0
운수업	191	272	96	47	46	3	48	35.2	17.4	17.0	1.2	17.8
정보통신업	223	278	47	24	20	8	23	17.1	8.6	7.4	2.8	8.4

산업대분류	기업수 (개)	노동자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제	단시간	
(개인서비스업)	172	315	184	109	80	73	75	58.2	34.6	25.4	23.2	23.7
숙박음식점업	71	154	94	68	42	53	26	61.3	44.4	27.5	34.5	16.8
예술스포츠여가	38	72	51	8	8	2	43	70.1	11.3	11.2	3.3	58.8
협회단체수리	63	89	38	32	30	18	6	43.3	36.5	33.6	20.0	6.8
(사회서비스업)	552	611	259	211	203	90	48	42.4	34.6	33.2	14.8	7.8
공공행정국방	9	27	9	5	5	2	3	32.5	19.8	19.3	5.7	12.7
교육 서비스업	155	261	123	100	99	36	23	47.0	38.2	37.9	13.7	8.8
보건사회복지	388	324	128	106	99	53	21	39.5	32.9	30.6	16.4	6.6
전산업	3,687	5,234	2,081	1,146	1,051	294	935	39.8	21.9	20.1	5.6	17.9

제조업 업종별 비정규직 비율은 기타운송장비(59.9%), 코크스연탄석유정제(40.5%), 가구제조업(40.0%), 비금속광물제품(38.8%), 1차금속제조업(36.8%) 순으로 높다. 제조업 중분류 25개 업종 중 21개 업종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보다 높은데, 특히 기타운송장비(56.2%), 코크스연탄석유정제(38.0%), 비금속광물제품(34.4%), 1차금속제조업(36.8%)에서 높다.

〈표 5〉 제조업 업종별 비정규직 규모(2022년 3월, 중분류 기준)

산업 (제조업 업종)	기업수 (개)	노동자수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제	단시간	
식료품 제조업	69	103	25	8	7	1	18	24.6	7.3	6.8	1.4	17.3
음료 제조업	9	23	6	2	2	0	5	27.4	6.9	6.7	0.4	20.5
담배 제조업	2	7	2	1	1	-	2	33.8	7.5	7.5	-	26.3
섬유제품 제조업	12	11	3	0	0	0	2	22.9	4.3	4.3	0.1	18.6
의복 액세서리 모피	14	6	1	0	0	0	0	10.8	6.0	5.6	1.2	4.7
가죽 가방 신발업	5	3	1	0	0	0	0	18.9	9.2	1.4	7.9	9.8
목재 나무제품	4	5	1	0	0	0	1	15.4	2.4	2.4	0.8	13.0
펄프 종이 종이제품	12	11	3	0	0	0	3	30.5	2.0	2.0	0.0	28.5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3	1	0	0	0	0	0	10.1	4.5	3.5	1.3	5.5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	7	22	9	1	1	0	8	40.5	2.4	2.4	0.0	38.0
화학물질 화학제품업	81	123	31	5	4	1	26	25.1	3.8	3.4	0.5	21.4
의료용 물질, 의약품	79	64	8	3	3	0	4	11.8	5.0	4.8	0.4	6.8
고무 플라스틱제품	34	42	6	1	1	0	5	14.4	2.9	2.8	0.1	11.5
비금속 광물제품	33	36	14	2	2	0	12	38.8	4.4	4.4	0.1	34.4
1차 금속 제조업	43	67	25	3	3	0	22	36.8	4.3	4.3	0.1	32.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4	33	8	3	3	0	5	23.7	8.3	8.3	0.2	15.3
전자부품 컴퓨터 등	136	445	82	14	13	1	68	18.5	3.1	2.9	0.2	15.4

산업 (제조업 업종)	기업수 (개)	노동자수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제	단시간	
의료 정밀 광학기기	35	25	7	5	5	0	2	28.3	19.9	19.9	0.1	8.3
전기장비 제조업	65	67	15	5	4	0	10	21.7	7.0	6.4	0.7	14.7
기타 기계 장비	90	76	12	5	5	1	7	15.8	6.2	6.1	1.3	9.6
자동차 트레일러	128	238	37	14	13	1	24	15.7	5.8	5.6	0.2	9.9
기타 운송장비	21	108	65	4	4	0	61	59.9	3.8	3.8	0.2	56.2
가구 제조업	6	5	2	0	0	0	2	40.0	5.1	4.8	0.6	34.9
기타 제품 제조업	5	3	0	0	0	0	0	11.4	10.1	8.6	5.8	1.3
산업용기계 장비수리	4	2	0	0	0	0	0	22.0	21.3	21.3	0.2	0.8
제조업	941	1,528	363	75	72	6	288	23.8	4.9	4.7	0.4	18.8
비제조업	2,746	3,706	1,718	1,071	979	288	647	46.4	28.9	26.4	7.8	17.5
전산업	3,687	5,234	2,081	1,146	1,051	294	935	39.8	21.9	20.1	5.6	17.9

V. 시도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을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680개(45.6%)로 가장 많고, 경기가 704개(19.0%)로 두 번째로 많다. 노동자수를 보면 서울이 299만명(57.2%)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97만명(18.5%)으로 두 번째로 많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2,523개(68.4%)고, 노동자가 414만명(79.1%)이다. 이것은 그만큼 서울 등 수도권에 대기업 본사가 몰려 있음을 말해준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곳은 울산(49.9%), 전남(49.6%) 순이고,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곳은 충남(27.6%), 충북(28.3%), 세종(31.6%), 경기(32.0%) 순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울산(39.0%), 전남(31.2%) 순으로 높고,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대구(34.0%)와 강원(31.2%), 부산(30.5%), 광주(30.0%) 순으로 높다.

〈표 6〉 시도별 비정규직 규모(2022년 3월 현재)

시도	기업수 (개)	노동자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제	단시간	
서울	1,680	2,994	1,274	716	640	198	558	42.5	23.9	21.4	6.6	18.6
부산	187	161	70	49	46	14	21	43.5	30.5	28.5	8.9	13.0
대구	108	110	47	37	37	9	10	43.0	34.0	33.2	8.5	9.0
인천	141	176	64	32	31	6	32	36.3	18.2	17.5	3.7	18.2
광주	75	73	31	22	22	4	9	42.6	30.0	29.7	4.9	12.6
대전	80	83	35	20	20	3	14	42.0	24.8	23.7	3.9	17.1

시도	기업수 (개)	노동자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제	단시간	
울산	52	84	42	9	9	1	33	49.9	10.9	10.2	1.2	39.0
세종	11	7	2	1	1	0	1	31.6	15.1	15.1	5.2	16.4
경기	702	969	310	152	144	30	158	32.0	15.7	14.8	3.1	16.3
강원	47	36	15	11	11	5	3	40.6	31.2	30.8	14.4	9.4
충북	87	64	18	13	12	4	6	28.3	19.6	18.7	6.8	8.7
충남	114	103	28	18	17	3	10	27.6	17.5	16.9	3.1	10.1
전북	56	47	20	14	13	4	6	41.9	29.2	28.9	8.5	12.7
전남	55	47	24	9	8	2	15	49.6	18.3	16.2	3.8	31.2
경북	113	104	38	17	16	5	21	36.4	16.1	15.4	4.7	20.3
경남	146	152	56	20	19	3	35	36.6	13.4	12.8	1.7	23.2
제주	33	23	8	6	6	1	3	35.3	24.6	24.5	3.7	10.7
전지역	3,687	5,234	2,081	1,146	1,051	294	935	39.8	21.9	20.1	5.6	17.9

Ⅵ.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비율

전체 3,687개 기업 중 비정규직을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업이 158개(4.3%)고, 10% 미만 사용하는 기업이 961개(26.1%)다. 100% 비정규직만 사용하는 기업은 33개(0.9%)고, 90% 이상 사용하는 기업이 374개(10.1%)다. 비정규직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은 1,041개(28.2%)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58개 기업 9만 5천명 가운데 48개 기업 3만 6천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다. 이들은 대부분 인력파견용역업체이므로 실제로 비정규직을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그만큼 줄어든다.

〈표 7〉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율별 비정규직 규모 (2022년 3월 현재)

비정규직 비율	기업수 (개)	노동자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제	단시간	
0%	158	95	-	-	-	-	-	-	-	-	-	-
10% 미만	961	848	40	27	24	5	13	4.7	3.2	2.9	0.5	1.6
10-20%미만	599	810	119	56	51	10	63	14.7	7.0	6.2	1.2	7.7
20-30%미만	425	846	210	76	68	16	133	24.8	9.0	8.0	1.9	15.8
30-40%미만	275	475	164	78	74	18	86	34.6	16.4	15.6	3.8	18.2
40-50%미만	228	364	165	87	79	24	78	45.4	23.9	21.8	6.6	21.5
50-60%미만	209	290	159	85	74	32	74	55.0	29.5	25.5	11.2	25.6
60-70%미만	175	411	267	154	128	59	113	64.9	37.5	31.1	14.4	27.4

비정규직 비율	기업수 (개)	노동자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제	단시간	
70-80%미만	115	236	178	96	93	25	82	75.3	40.7	39.3	10.6	34.6
80-90%미만	135	440	374	137	116	55	237	85.0	31.2	26.3	12.4	53.8
90-100%미만	374	399	385	330	328	46	55	96.4	82.6	82.1	11.6	13.7
100%	33	20	20	19	17	5	1	100.0	95.2	84.4	24.2	4.8
전체	3,687	5,234	2,081	1,146	1,051	294	935	39.8	21.9	20.1	5.6	17.9

Ⅶ. 재벌기업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76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총 2,886개사다. 노동부가 2022년 3월 기준으로 공시한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에는 76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582개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221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9만명(40.4%)이다.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5만명(11.1%)이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65만명(29.3%)이다.

이에 비해 76개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은 3,105개고,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302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119만명(39.3%)이다.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0만명(29.8%)이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29만명(9.5%)이다. 재벌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표 8〉 대기업집단 비정규직 규모(2022년 3월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 기업수 (개)	조사 기업수 (개)	노동자수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제	단시간	
1-10대재벌	772	254	1,358	516	104	87	28	412	38.0	7.7	6.4	2.1	30.3
11-20대재벌	555	95	342	153	53	24	32	99	44.6	15.6	7.1	9.3	29.0
21-30대재벌	323	69	136	56	17	15	4	38	40.9	12.7	11.0	3.0	28.2
31-40대재벌	225	53	96	33	7	6	1	27	34.9	6.8	6.7	0.8	28.1
41-50대재벌	295	42	81	39	10	9	4	29	47.9	12.1	11.7	4.4	35.8
51-60대재벌	205	31	124	74	47	47	2	26	59.6	38.2	37.9	2.0	21.3
61-76대재벌	511	38	73	23	8	7	3	15	31.0	10.9	10.1	4.5	20.1
대기업집단	2,886	582	2,211	893	246	197	74	647	40.4	11.1	8.9	3.3	29.3
비집단		3,105	3,024	1,188	900	855	220	288	39.3	29.8	28.3	7.3	9.5
전체		3,687	5,234	2,081	1,146	1,051	294	935	39.8	21.9	20.1	5.6	17.9

10대 재벌 노동자 136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52만명(38.0%)이다. 이 가운데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0만명(7.7%)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1만명(30.3%)이다.

10대 재벌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삼성(15만 3천명), 현대자동차(8만 3천명), 롯데(6만 3천명), LG(4만 5천명), 현대중공업(4만 3천명), SK(3만 2천명), GS(3만 1천명), 한화(2만 5천명), 농협(2만 1천명), 포스코(2만명) 순이다.

10대 재벌 비정규직 비율은 GS(64.0%)가 가장 높고, 포스코(61.0%), 현대중공업(59.2%), 롯데(53.2%), 농협(42.6%), 한화(40.9%), 삼성(36.7%), 현대자동차(34.6%), SK(25.0%), LG(23.7%) 순이다.

〈표 9〉 대기업집단별 비정규직 규모(2022년 3월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기업수(개)	조사기업수(개)	노동자수(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고용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제	단시간	
삼성	60	38	416	153	14	12	3	139	36.7	3.3	2.9	0.8	33.4
에스케이	186	49	128	32	11	10	1	21	25.0	8.6	8.1	0.6	16.5
현대자동차	57	27	241	83	17	17	0	66	34.6	7.2	7.2	0.1	27.4
엘지	73	37	192	45	8	8	1	37	23.7	4.3	4.1	0.4	19.4
롯데	85	27	118	63	25	13	18	38	53.2	21.2	10.8	14.9	32.0
포스코	38	12	33	20	4	4	0	16	61.0	12.3	12.2	0.4	48.7
한화	91	22	60	25	3	3	0	22	40.9	5.1	4.9	0.3	35.9
지에스	93	14	49	31	9	8	3	22	64.0	19.4	16.4	5.3	44.6
현대중공업	36	13	73	43	2	2	0	42	59.2	2.2	2.2	0.0	57.0
농협	53	15	48	21	11	10	3	10	42.6	21.8	20.5	5.5	20.9
신세계	53	16	94	49	25	6	20	24	52.2	26.8	5.9	21.5	25.4
케이티	50	21	57	8	6	5	1	2	13.7	10.2	9.6	1.2	3.5
씨제이	85	13	43	14	12	3	11	2	32.3	27.0	6.7	25.0	5.3
한진	33	9	43	16	0	0	0	16	38.0	1.0	1.0	0.1	37.0
카카오	136	11	14	3	1	1	0	2	21.2	5.8	5.7	0.4	15.4
두산	21	5	14	6	1	1	0	5	42.6	10.1	10.1	0.0	32.4
엘에스	58	7	11	2	1	1	0	1	19.8	6.7	6.6	0.0	13.2
DL	42	5	33	27	4	4	0	23	82.5	11.8	11.8	0.0	70.7
부영	22	3	5	3	0	0	-	3	71.5	7.9	7.9	-	63.6
중흥건설	55	5	29	24	3	3	0	21	83.0	10.1	10.1	0.2	73.0
미래에셋	40	4	7	2	1	1	0	0	28.5	21.2	21.1	4.1	7.3
네이버	54	9	11	1	0	0	0	0	4.8	3.1	2.9	0.2	1.8
에쓰-오일	2	1	5	1	0	0	0	1	31.4	1.0	0.9	0.1	30.4
현대백화점	23	13	33	16	4	2	2	12	49.9	11.6	7.2	7.4	38.3
에이치엠엠	4	2	2	0	0	0	-	0	19.0	18.2	18.2	-	0.9
금호아시아나	32	10	21	5	1	1	0	4	24.9	4.6	4.5	0.2	20.3
하림	55	8	8	2	0	0	0	2	29.5	5.7	5.6	0.3	23.8
에이치디씨	34	5	19	17	7	7	0	10	87.6	35.1	35.1	2.1	52.5
효성	53	12	24	7	3	2	1	4	30.7	12.3	9.0	3.7	18.4
영풍	26	5	8	4	0	0	-	3	46.8	4.8	4.8	-	42.1
셀트리온	7	2	3	1	0	0	0	0	18.2	7.8	7.8	0.2	10.4
교보생명보험	14	9	12	5	2	2	1	3	39.5	16.0	16.0	4.2	23.5

대기업집단	계열기업수 (개)	조사기업수 (개)	노동자수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제	단시간	
호반건설	43	5	4	2	1	1	0	0	38.7	29.8	29.8	0.2	8.9
SM	63	6	3	1	0	0	0	1	34.1	10.8	10.8	0.3	23.3
넷마블	30	8	11	0	0	0	0	0	3.8	2.2	2.1	0.2	1.6
케이티앤지	12	3	10	4	1	1	-	3	36.5	5.1	5.1	-	31.3
케이씨씨	14	4	14	8	1	1	0	7	55.0	5.0	5.0	0.0	49.9
대우조선해양	4	2	21	12	0	0	-	12	57.9	2.0	2.0	-	55.9
넥슨	18	4	6	0	0	0	0	0	5.9	5.7	5.6	0.1	0.2
DB	20	10	12	1	1	1	0	0	8.0	4.9	4.3	1.5	3.1
태영	76	7	12	7	1	1	0	6	62.5	12.5	12.5	0.2	50.0
코오롱	41	8	19	10	2	2	0	8	53.2	10.4	10.4	1.3	42.8
오씨아이	22	5	9	5	0	0	0	5	57.8	5.5	5.4	0.0	52.3
두나무	14	-											
세아	26	4	7	3	0	0	0	3	45.8	1.4	1.4	0.6	44.4
한국타이어	23	2	10	2	0	0	-	2	21.8	0.9	0.9	-	20.9
이랜드	31	7	12	7	5	5	3	2	53.7	38.4	37.0	24.5	15.3
태광	19	4	8	3	1	1	0	2	38.2	10.5	9.0	3.1	27.7
금호석유화학	13	3	3	1	0	0	-	1	38.1	4.2	4.2	-	33.9
장금상선	30	2	2	0	0	0	-	0	16.7	0.3	0.3	-	16.4
동원	26	7	15	6	2	2	0	4	40.7	12.8	10.9	2.4	27.9
한라	15	4	11	6	1	1	0	5	50.8	8.2	8.2	3.2	42.6
쿠팡	10	3	73	53	43	42	2	11	72.9	58.2	58.0	2.2	14.7
삼천리	44	3	2	0	0	0	0	0	13.4	8.5	8.5	1.9	4.9
다우키움	48	4	3	1	1	1	0	0	43.3	38.2	37.4	2.7	5.1
아모레퍼시픽	13	2	9	4	0	0	0	3	40.8	4.8	4.3	0.5	36.0
엠디엠	16	-											
동국제강	11	4	6	2	0	0	0	2	39.1	2.0	2.0	0.0	37.0
크래프톤	10	1	2	0	0	0	0	0	11.4	6.0	5.8	0.4	5.3
삼양	12	3	3	1	0	0	0	1	36.4	3.3	3.3	0.1	33.1
애경	35	6	7	1	0	0	0	1	17.1	5.3	5.2	0.1	11.8
대방건설	45	1	1	0	0	0	-	-	35.2	35.2	35.2	-	-
중앙	55	4	3	1	1	1	0	0	32.7	21.6	21.2	17.3	11.1
한국항공우주	4	1	6	2	1	1	-	1	34.3	14.2	14.2	-	20.1
한국지엠	3	2	12	0	-	-	-	0	0.1	-	-	-	0.1
하이트진로	15	1	5	3	0	0	-	2	46.1	2.5	2.5	-	43.6
반도홀딩스	25	1	0	0	0	0	-	-	12.3	12.3	12.3	-	-
현대해상화재	14	5	10	1	1	1	0	1	13.4	7.9	7.9	0.1	5.5
유진	57	3	3	1	0	0	-	0	35.0	17.5	17.5	-	17.5
보성	67	1	4	4	0	0	0	4	85.7	5.5	5.5	0.0	80.2
KG	23	3	5	3	3	2	2	1	57.0	46.5	42.3	45.2	10.5
아이에스지주	53	2	4	4	1	1	-	3	84.4	23.8	23.8	-	60.6
일진	38	-											
오케이금융	19	3	2	0	0	0	-	0	20.8	2.2	2.2	-	18.6
신영	34	-											
농심	24	5	10	2	1	0	0	2	25.2	6.4	2.8	3.7	18.8
대기업집단	5,772	582	2,211	893	246	197	74	647	40.4	11.1	8.9	3.3	29.3

〈표 10〉 대기업집단의 비정규직 비율 분포 (2022년 3월)

비정규직 비율	대기업집단 수	대기업집단 명칭
10% 미만	5	DB, 넥슨, 네이버, 넷마블, 한국지엠
10-20%미만	10	엘에스, 에이치엠엠, 셀트리온, 애경, 장금상선, 케이티,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천리, 반도홀딩스, 크래프톤
20-30%미만	9	하림, 미래에셋, 농심, 에스케이, 금호아시아나, 엘지, 한국타이어, 카카오, 오케이금융
30-40%미만	18	교보생명보험, 동국제강, 호반건설, 태광, 금호석유화학, 한진, 삼성, 케이티앤지, 삼양, 대방건설, 유진, 현대자동차, 한국항공우주산업, SM, 중앙, 씨제이, 에쓰-오일, 효성
40-50%미만	10	현대백화점, 영풍, 하이트진로, 세아, 다우키움, 두산, 농협, 한화, 아모레퍼시픽, 동원
50-60%미만	10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오씨아이, KG, 케이씨씨, 이랜드, 롯데, 코오롱, 신세계, 한라
60-70%미만	3	지에스, 태영, 포스코
70-80%미만	2	쿠팡, 부영
80-90%미만	5	에이치디씨, 보성, 아이에스지주, 중흥건설, DL

Ⅷ. 1만 명 이상 거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 기업 중 노동자 수가 1만 명 이상인 거대기업은 60개사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42만명이고 비정규직은 62만명(43.3%)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2만명(29.8%)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19만명(13.4%)보다 훨씬 많다.

한화건설(88.1%), 디엘이앤씨(85.5%), 현대건설(84.8%), 삼성물산(84.2%), 우건설(83.4%), 현대엔지니어링(82.7%), 롯데건설(82.5%), 포스코건설(81.6%) 등 건설 8개사와 한국맥도날드(86.0%), 스타벅스커피코리아(82.3%) 등 외식 2개사, 한진(89.3%), 맥서브(99.0%), 대한노인회(89.5%)는 비정규직 비율이 80%가 넘는다. 이에 비해 서울교통공사(1.7%), LG유플러스(3.1%), KT(4.0%), 기아자동차(4.2%), LG디스플레이(6.4%) 5개사는 10%가 안 된다. 업종과 기업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 차이가 크다.

〈표 11〉 1만인 이상 거대기업 비정규직 규모(2022년 3월 현재)

회사 이름	산업	노동자수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제	단시간	
LG화학	20	16,980	3,046	338	328	10	2,708	17.9	2.0	1.9	0.1	15.9
현대제철	24	21,378	10,348	329	329	-	10,019	48.4	1.5	1.5	-	46.9
삼성디스플레이	26	26,478	3,561	87	29	58	3,474	13.4	0.3	0.1	0.2	13.1
삼성에스디아이기흥	26	13,344	2,687	952	951	1	1,735	20.1	7.1	7.1	0.0	13.0
삼성전기	26	14,371	2,136	231	203	28	1,905	14.9	1.6	1.4	0.2	13.3

회사 이름	산업	노동자수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제	단시간	
삼성전자	26	148,098	31,859	997	591	406	30,862	21.5	0.7	0.4	0.3	20.8
에스케이하이닉스	26	42,911	12,285	69	69	-	12,216	28.6	0.2	0.2	-	28.5
엘지디스플레이	26	30,910	1,964	246	231	15	1,718	6.4	0.8	0.7	0.0	5.6
엘지이노텍	26	12,475	3,749	3,268	3,268	-	481	30.1	26.2	26.2	-	3.9
엘지전자	26	39,998	5,212	1,301	1,294	7	3,911	13.0	3.3	3.2	0.0	9.8
엘지에너지솔루션	28	11,358	1,773	136	122	14	1,637	15.6	1.2	1.1	0.1	14.4
기아	30	35,419	1,477	1,429	1,426	39	48	4.2	4.0	4.0	0.1	0.1
현대모비스	30	12,954	2,375	510	507	3	1,865	18.3	3.9	3.9	0.0	14.4
현대자동차	30	76,234	11,881	6,955	6,955	3	4,926	15.6	9.1	9.1	0.0	6.5
대우조선해양	31	20,748	12,342	392	392	-	11,950	59.5	1.9	1.9	-	57.6
현대삼호중공업	31	13,306	9,889	110	110	-	9,779	74.3	0.8	0.8	-	73.5
현대중공업	31	35,624	23,516	412	412	8	23,104	66.0	1.2	1.2	0.0	64.9
GS건설	41	17,945	14,055	1,514	1,514	-	12,541	78.3	8.4	8.4	-	69.9
대우건설본사	41	21,743	18,129	2,035	2,035	-	16,094	83.4	9.4	9.4	-	74.0
디엘이앤씨	41	23,575	20,166	2,047	2,047	-	18,119	85.5	8.7	8.7	-	76.9
롯데건설	41	14,577	12,032	2,380	2,380	-	9,652	82.5	16.3	16.3	-	66.2
삼성엔지니어링	41	13,655	9,494	1,265	1,263	13	8,229	69.5	9.3	9.2	0.1	60.3
삼성중공업	41	23,282	14,122	115	99	16	14,007	60.7	0.5	0.4	0.1	60.2
포스코건설/본사	41	19,267	15,725	2,450	2,450	-	13,275	81.6	12.7	12.7	-	68.9
한화건설	41	13,884	12,229	939	939	-	11,290	88.1	6.8	6.8	-	81.3
현대건설	41	27,766	23,550	2,268	2,265	4	21,282	84.8	8.2	8.2	0.0	76.6
아성다이소	46	10,492	4,684	4,575	4,575	1,935	109	44.6	43.6	43.6	18.4	1.0
홈플러스	46	23,761	6,416	3,372	1,387	2,513	3,044	27.0	14.2	5.8	10.6	12.8
롯데쇼핑	47	33,494	23,080	12,561	972	12,229	10,519	68.9	37.5	2.9	36.5	31.4
이마트	47	37,645	13,654	3,042	2,749	525	10,612	36.3	8.1	7.3	1.4	28.2
쿠팡	47	31,407	20,932	13,616	13,605	419	7,316	66.6	43.4	43.3	1.3	23.3
현대그린푸드	47	10,916	5,698	1,299	530	1,218	4,399	52.2	11.9	4.9	11.2	40.3
서울교통공사	49	16,909	280	50	50	-	230	1.7	0.3	0.3	-	1.4
한진	49	13,283	11,871	108	108	-	11,763	89.4	0.8	0.8	-	88.6
대한항공	51	21,518	2,530	107	98	9	2,423	11.8	0.5	0.5	0.0	11.3
아시아나항공	51	10,047	1,545	76	65	11	1,469	15.4	0.8	0.6	0.1	14.6
쿠팡풀필먼트서비스	52	41,207	32,290	28,862	28,775	1,164	3,428	78.4	70.0	69.8	2.8	8.3
삼성웰스토리	56	14,199	8,650	2,254	1,610	1,085	6,396	60.9	15.9	11.3	7.6	45.0
스타벅스커피코리아	56	21,009	17,295	17,063	1	17,062	232	82.3	81.2	0.0	81.2	1.1
아워홈	56	11,910	7,334	4,249	3,472	2,302	3,085	61.6	35.7	29.2	19.3	25.9
한국맥도날드	56	10,521	9,053	9,051	6,527	9,047	2	86.0	86.0	62.0	86.0	0.0

회사 이름	산업	노동자수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간접 고용
				소계	기간제	단시간			소계	기간제	단시간	
삼성에스디에스	58	17,278	4,948	130	33	97	4,818	28.6	0.8	0.2	0.6	27.9
KT	61	21,570	865	705	705	-	160	4.0	3.3	3.3	-	0.7
엘지유플러스	61	10,483	324	177	177	-	147	3.1	1.7	1.7	-	1.4
유베이스	63	10,252	1,659	1,638	507	1,300	21	16.2	16.0	4.9	12.7	0.2
국민은행	64	20,663	5,889	1,871	1,871	448	4,018	28.5	9.1	9.1	2.2	19.4
농협은행	64	20,086	6,549	2,785	2,785	1,078	3,764	32.6	13.9	13.9	5.4	18.7
신한은행	64	16,979	4,582	1,109	952	436	3,473	27.0	6.5	5.6	2.6	20.5
우리은행	64	17,243	4,393	839	584	447	3,554	25.5	4.9	3.4	2.6	20.6
하나은행	64	14,971	4,058	835	835	195	3,223	27.1	5.6	5.6	1.3	21.5
현대엔지니어링	72	26,158	21,629	2,247	2,239	88	19,382	82.7	8.6	8.6	0.3	74.1
맥서브	74	10,236	10,138	10,138	10,138	3,627	-	99.0	99.0	99.0	35.4	-
삼구아이앤씨	75	14,781	7,249	7,249	7,249	-	-	49.0	49.0	49.0	-	-
에스원	75	23,066	16,414	300	297	3	16,114	71.2	1.3	1.3	0.0	69.9
가톨릭학원	84	22,870	7,383	4,120	4,120	1,045	3,263	32.3	18.0	18.0	4.6	14.3
고려중앙학원	85	16,461	7,398	6,030	6,026	1,096	1,368	44.9	36.6	36.6	6.7	8.3
연세대학교수익사업	85	23,760	8,289	5,130	5,079	2,719	3,159	34.9	21.6	21.4	11.4	13.3
아산사회복지재단	86	14,641	4,253	1,352	1,350	228	2,901	29.0	9.2	9.2	1.6	19.8
삼성물산	90	52,516	44,213	3,428	3,394	402	40,785	84.2	6.5	6.5	0.8	77.7
대한노인회	94	11,136	9,963	7,776	7,751	6,403	2,187	89.5	69.8	69.6	57.5	19.6
60개사		1,421,748	615,110	190,919	152,825	69,756	424,191	43.3	13.4	10.7	4.9	29.8

Ⅸ. 함의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은 2014년 3월 2,942개소에서 2022년 3월 3,687개소로 745개 증가했고,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같은 기간 436만명에서 523만명으로 87만명 증가했다.

둘째, 비정규직은 2014년 162만명에서 2018년 194만명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187만명으로 감소했고, 2020~21년에는 189~192만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208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37.3%에서 2017년 40.3%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18년 39.8%에서 2021년 37.9%까지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39.8%로 한 해 만에 1.9%p 증가했다.

셋째, 10대 재벌 노동자 136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52만명(38.0%)이다. 이 가운데 직접

고용 비정규직은 10만명(7.7%)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1만명(30.3%)이다. 10대 재벌 비정규직 비율은 GS(64.0%), 포스코(61.0%), 현대중공업(59.2%), 롯데(53.2%), 농협(42.6%), 한화(40.9%), 삼성(36.7%), 현대자동차(34.6%), SK(25.0%), LG(23.7%) 순이다.

넷째, 1만명 이상 거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62만명(43.3%)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9만명(13.4%),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2만명(29.8%)이다.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대기업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파견이다.

다섯째, 산업대분류 기준으로는 제조업이 941개(25.5%)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16개(16.7%)로 두 번째로 많다. 노동자수를 보더라도 제조업이 153만명(29.2%)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9만명(13.2%)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것은 그만큼 무분별한 아웃소싱으로 인력파견 용역사업이 번창하고 있음을 말해준다.